

“U대회 성공 동력을 광주권 발전 기폭제로”

윤 시장 “하반기 축제-문화·관광 연계 전남과 공조” PD·작가 팸투어... 교통·숙박 등 국제수준 업그레이드

윤정현 광주시장이 광주U대회 성공을 광주권 발전의 '기폭제'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20일 오전 광주U대회가 끝난 뒤 가진 첫 간담회에서 “지난 주 우리는 150만 시민과 함께 광주하계U대회를 무결점 대회로 치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썼다”면서 “U대회의 성공 동력을 광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U대회의 효과가 광주를 넘어 전남 지역과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문화·관광의 틀에서 경쟁력 있는 남도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시장은 광주U대회를 치르면서 광주 시민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국제대회를 훌륭히 치렀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이 같은 열정과 에너지를 곧바로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예정된 광주·전남지역 대형 축제를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엮어 ‘매력 있는 남도’, ‘외국인이 찾는 남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와 나주에서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 광주 세계김치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전당 개관, 디자인비엔날레 및 총회 등 대형 행사가 예정돼 있다.

시는 이번 광주U대회를 통해 광주·전남의 유기적인 행정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관광·문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남도의 볼거리, 먹을 거리, 놀 거리 등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PD나 작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광주U대회의 필수 인프라인 교통과 숙박 등도 대회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된 만큼 국제 도시에 걸맞은 수준이 되도록 꾸준히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U대회 시설물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윤 시장은 U대회에 이용했던 모든 시설은 결국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U대회에 이용된 시설을 스포츠파크 또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해 시민들이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주조했다.

윤 시장은 “메르스 사태는 최악의 여건 속에서 완벽한 U대회를 치른 시민에게 감사 드리며, 이는 150만 시민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저비용 고효율 대회의 롤 모델이 되었고, 문화로 세계의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 컬처비시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대회 기간 광주시민들이 성숙한 의식과 역량을 발휘했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문화전당 개관 총력 지원

관광·숙박·교통·홍보 등 지원본부 9개반 행정력 집중

광주시가 오는 9월4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 막바지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관련 인사명단 22면〉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문화전당 운영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출범을 계기로 ‘문화전당 개관 지원본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개관지원본부 산하에 두고 있는 문화관광반 등 9개 반은 문화관광, 숙박보전, 경관정비, 교통대책, 안전, 시민참여, 홍보, 자치구 지원반 등이다.

세부적으로 문화관광반은 개관 전후로 문화예술행사 집중 개최와 관광코스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며 숙박보전반은 숙박시설 점검 및 식품접

객업소 종사자 교육 등을 한다. 교통대책반은 전담 주변 신호체계 및 임시주차장 확보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관 축제기간인 4일부터 21일까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나서는 등 손님을 맞이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본부는 또 매일 1차례 회의를 열고 분야별 지원계획과 추진상황 관리, 정례회의 등에서는 노년 요청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7월2일~8월2일 전담 사전공개, 9월 개관행사, 9월4일~27일 개관축제를 총괄하고 국내외 홍보와 내외국인 유치전략을 추진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비엔날레재단-광주시교육청 협약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박양우·오른쪽에서 네번째)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다섯번째)은 20일 오전 재단 3층 회의실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섬진강 다리위 영·호남 줄다리기

24~26일 섬진강축제

영·호남을 이어주는 첫 다리로 만들어진 지 80년 된 섬진교에서 양 지역민이 만나 화합잔치를 벌인다.

경남 하동군은 ‘제1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축제’ 기간인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섬진교 한복판에서 ‘영·호남 화합 줄다리기 대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섬진교는 영·호남을 연결하는 최초의 교량으로 1935년 설치됐다. 가설 후 6·25 전쟁 때 파괴돼 끊어진 아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개통 80년 만에 두 지역 사람이 만나 뭉뚱으로 부대끼며 화합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양과 경남 하동 사이엔 비록 섬진강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같은 생활권에서 나뉘어오르던 하동 5일장과 화개장터를 오가며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이웃사촌이었다.

하동군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통일을 준비하는 시기에 영·호남 화합을 통한 동반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처음 열리는 섬진강 재첩축제 때 화합 한마당 대회를 벌이기로 했다.

광양시와 하동군이 주최하고 광양·하동공생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광양사람 120명, 하동사람 120명 등 240명이 참가해 360m의 긴 줄을 당기며 우의와 화합을 확인한다. 행사는 두 지역 선수들이 각각 180m의 줄을 매고 입장하는 만남의 길놀이로 시작해 하나로 연결한 뒤 섬진강 당기기, 은빛 모래 당기기, 황금재첩 당기기 등 세 차례 줄다리기로 승부를 가린다.

하동 섬진강축제는 ‘시원한 여름나기 하동 섬진강으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동송림과 섬진강 일원에서 다양한 공연·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연합뉴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국가 인권위원장에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이성호(57)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내정자는 내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법정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들어 내정된 첫 인권위원장이란 의미가 있다.

이 내정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 대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 12기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 고법 수석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0년대 대표적 공공조작 사건인 ‘아람회’ 피해자들의 제소에서 판사 선배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치매 환자 실종 막자... 위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미래부·전남경찰 등 협약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위치추적시스템이 본격 개발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1일 전남경찰청에서 한국환경생태연구소, SK텔레콤, 전남경찰청과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치매 환자 실종방지 위치추적시스템은 조류나 포유동물에 부착해 이동경로를 관

찰하는 ‘야생동물 위치추적장치’(WT200)에 기반해 개발된다. 그간 보급돼 온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는 8시간마다 충전을 해야 한다. 목걸이형이라 분실 위험이 큰 것도 단점이었다. 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10~100m로 넓어 실종된 치매노인을 찾아내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중앙과학관 등은 기존 태양열 충전방식인 WT200의 배터리를 리튬이온 전지로

대체해 충전 없이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맥박과 체온을 측정하는 센서 기능을 추가해 활동 여부에 따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기 형태는 손목시계형으로 바뀐다. 이동통신사의 상용 통신망을 사용하는 만큼 위치정보 오차 범위가 1~10m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글로벌 데이터로밍 기능도 갖춰 해외여행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전남경찰청은 기기 개발이 완료되는 연말께 관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가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12,500원	8,500원	5,000원
떡갈비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가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가사 행정

민사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장학생 모집

재단법인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는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원 자녀 중에서 애학심이 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기량이 뛰어나고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I. 지원 자격 및 선발 인원

- ◆지원 자격
 - 영광군민 및 재광영광군향우회 회원 자녀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2014년 8.1현재 주민등록이 영광군이나 광주광역시에 둔 학생
- ◆선발예정인원: 총22명 중 광주지역 10명, 영광지역 12명 (중학생 0명, 고교생 0명, 대학생 0명)

II. 선발 방법 및 구비 서류

- ◆선발 방법
 - 영광군민의 자녀 중 영광군수가 추천한 자(영광군 추천인식에 의한, 영광군공민회)
 - 재광영광군향우 자녀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 확정된 자
- ◆구비 서류(재광영광군향우 자녀)
 - 장학금 신청서 1부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 추천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 통장 사본(본인명의의 한함)
 - 성적우수자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기능보유자나 선행학생은 증명할만한 자료 사본
- ◆구비서류 양식은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카페 /http://cafe.daum.net/hmygg 링크

III. 선발 일정

- 서류접수: 2015년 7월 6일) ~ 7.31(금)
- 최종 확정 안내: 2015년 8월경 발표(개별 통지)
- 장학금 지급 및 중서 수여: 영광군민 자녀-영광군민의 날(9월) 예정, 재광향우 자녀-재광영광군향우회 송년 행사 (12월) 예정

IV. 신청 방법

- 우편·방문접수
- 신청 및 문의처: (502-882)광주광역시 서구 유원로 100 (동천동 예천빌딩 7층)
- 전화: (062)522-8422 사무국장 임재경: 010-8667-6143

V.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됨.
- 관련서류의 제출은 영광군민의 자녀는 영광군청으로, 재광영광군향우자녀는 이형만영광군향우장학회 사무국으로 제출